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기도



<법화경>과 유신론적 경향(8)

<법화경>은 전체 27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방편품, 비유품, 심해품, 여래수량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핵심이다. 특히 여래수량품에서는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함을 말하고 있다. 수량품의 모두에 이하면 부처님께서는 카필라국에서 태어나 보드카야에서 성불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무량한 시간 이전에 이미 성불했다고 선언한다.

"오백천만여나유타아승지의 삼천대천세계를 가벌 어떤 사람이 부수어 가는 티끌로 만들어 동방으로 오백천만여나유타아승지의 나라를 지나 여기에 티끌 하나를 떨어뜨리되 이와 같이 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이 티끌을 다 떨어뜨렸다면... 이 모든 세계를 생각이나 계산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 선남자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리라. 이 모든 세계에 티끌이 떨어지지 않으니 떨어지지 않은 곳이나 티끌이 떨어진 곳이나 티끌을 만들고, 이 중 한 티끌을 일찍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처가 된 것은 이보다 훨씬 먼저 나유타 아승지겁이나 오래 되고나"고 한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단위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해 있다. <구사론>에 의거해 <법

원회 죽움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 어디 서나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실존적인 불안과 고뇌에 허덕이며, 불확실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들에게 무엇인가 의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연히 존재하고, 시공을 초월해 있는 절대적 존재를 상상했다는 점에서 초기불교의 핵심이론인 부처론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 공극적 실체를 부처론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 공극적 실체를 부처론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 공극적 실체를 부처론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

동시에 <법화경>에 나오는 부처님은 인간의 길 총화복을 주재하는 천지상과 진성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의 이 세계는 모두 나의 소유이다. 그 속의 중생은 모두 나의 자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곳은 가지가지의 환란이 있다. 오직 나 한 사람 만이 그들을 구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갖가지 욕망과 불을 지피는 것이 매우 길기 때 문이다". "나는 중생의 아버지가니 마땅히 그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제거해 무량무변한 부처님의



◇18일 국회 입마당에서 평화심포지엄 참석자들과 함께 한 견학기명상.



◇20일 오피나리온 리더를 위한 조찬강연 후 가진 견학기명상.



◇20일 서울 강남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첫 대중강연.

대중강연

18일 평상공동체 플럼빌리지의 '평화의 노 래' 가 서울 강남 코엑스 컨벤션홀을 열었다. 밤색 복복 차림의 수행자들이 만들어내는 느리고 부드러운 화음. 하지만 이들은 조용히 외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에서도, 돌이키고 내쉬는 숨소리에서도. 바로 이 순간 '깨어있기(mindfulness)의 에너지를 느끼라고 노래했다.

방한 다섯째, 낙담한 스님은 20일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스님의 저서 <화(Anger)>를 주제로 3회에 독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지난 16일 내한 이후 공식 기자회견, 심포지엄, 평화포럼 등의 일정과 달리, 일반 독자들과 머리를 맞대는 대중 강연이었다. 또한 가지, 불어은 한국 스님이 나왔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한 조계종 사회부장 현광 스님이 한국불교 정서 맞게 강연 내용을 전달했다.

스님은 강연에서 이 말부터 대중에게 던졌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스님이 묻어 되물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간의 침묵, 스님의 대답은 간단했다. "아려본, '깨어 있기'(명심)를 들으세요.(listening your mindfulness.)"이러 스님은 '화'에 대한 설명을 풀어 나갔다.

"화는 좋지 못한 형태의 에너지로 자비의 힘을 억제

“‘깨어있기’ 통해 자비심 가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는 자비를 태우는 불과 같고,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물과 같은 거지요. 문득 화를 다스리는 '자비'의 힘을 충분하게 가다듬어 줄 수 있는 방법, 그 것이 바로 '깨어있기'인 것입니다." 이어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지상 백고좌

들리고 내쉬는 숨소리 느낄 때 서로의 상처 용서하고 참회돼

가져야 하며, 지혜는 항상 '깨어 있기'를 개발해야 한다. '깨어 있기'란 바로 지금,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피는 것"이라며 "한 잔의 차를 마실 때에도 마시는 순간에 깨어 있다면, 미래의 결정이나 과거의 잘못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탁났한 스님

(프랑스 플럼빌리지)

것입니다. 단 10분이라도 대화와 소통을 한다면, 화를 '자비로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맑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만안란·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실버타운

▶장기대 기공소재 (유료양로원)

시설안내 ◀

- 숙실 수 : 96실
- 숙실형 : 95실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중) 등.

[입주비용]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동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500,000		
휴양입주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입주보증금]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주보증금]				
입주금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동비	비 고
현금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권구 후원부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낼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성라실버타운 기공사무소: 경기도 가평군 삼번면부사동·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82번지 동수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 매일경제신문 일간 경제명예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일 생활예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저탄보충 약을 이용한 절식요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동안에 쌓인 오장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0년 임상경험을 비단인들에게는 귀가 반백 드는 이야기기 아닐 수 없다.!!

“여가야 살빼기 더 쉽다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 명 넘김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 양과도,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식기간 동안 체 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 건강해지면 바꾸는 절식요법 절식법

동통하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축적되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 세 이에서 바뀌고 간에는 지방이 쌓이고 혈관에 쌓여 혈관이 막히고 고 콜레스테롤은 현상에서 수십년간 동안에 쌓인 오장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0년 임상경험을 비단인들에게는 귀가 반백 드는 이야기기 아닐 수 없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식품은 우리몸에서 지만 50여종의 아미노, 과일, 해조류 등을 3~5 년간 장기간 저탄보충 요법으로 그 속에는 천연항균과 미네랄, 수확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미치 쓰리게 될 수 있지만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을 통해 소라없이 진행할 수 있다.

02)523-0708 초록 락 (월보호소)

www.chorokwon.com

일봉문도회 소집공고

일봉큰스님 은제사 및 그 직계제자들의 모암인 '일봉문도회'가 제5차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소집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좋은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일시 : 불기 2547(2003)년 3월 28일(금) 오전 11시
- ◆ 장소 : 서울 일봉선원 (일봉문도회 전법도량)

일봉선원 : 서울시 중로구 신영동 93번지

TEL 02)379-2635, 736-2585

FAX 02)736-2584

◆ 작명, 오형참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깎아부 뒤길 시연정사

053)853-2211, 011-808-8880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영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도 치유 되지 않는 원인모름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증증, 외사증, 중풍 (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병 면

수증증, 외사증, 중풍 (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유사체증과 비교해 보십시오◆

38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후대문 : 016-597-4449

011-809-2338

대구 팔공산 깎아부 뒤길 시연정사

053)853-2211, 011-808-8880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여 항상 처음어는 차례로 법복없이 저를 생산 - 연구에 힘쓰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자님을 살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재물을 만듭니다.

- 1. 모직혼방 풀세탁 가능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마 : ₩140,000
- 2. 면 100% 조리쿠니 무직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마 : ₩130,000
- 3. 면(무지) (면순 100%)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마 : ₩130,000
- 4. 무명 적삼, 바지 : ₩180,000 동방, 바지 : ₩200,000 두루마 : ₩180,000
- 5. 법복 (회색, 박색) 조끼, 바지 : ₩60,000 ₩65,000
- 6. 장삼 (모직) ₩200,000 ~ ₩250,000
- 7. 티셔츠 (하이카라) ₩30,000

◆유사체증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열로도 가시, 누비 주문 받습니다 *

◆ैया오은은: 대구 지아일 당영로동 3번 출구 옆

38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후대문 : 016-597-4449

011-809-2338

대구 팔공산 깎아부 뒤길 시연정사

053)853-2211, 011-808-8880

대구 자비의 전화 제12기 상담원 모집

“아름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하라”

대구 자비의 전화에서는 상담 지원 봉사자 교육 및 모집을 위한 제12기 카운슬러 대학을 개강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아실현을 이룩하려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강 일 : 2003년 4월 15일 ~ 5월 16일(매주 화·목)
- 교육기간 : 오후 2시 ~ 4시
- 교육대상 : 20세이상, 고졸이상의 남녀 (상담 봉사에 관심있는 분)
- 교육장소 : 가파의 전학 교육실 (053-753-9734)
- 교 육 비 :

원수	날짜	요일	재 목	강 사
1	4.15	화	전화상담이론	영남대학교교강사 김경호
2	4.18	금	자랑봉사이론	재미의 전화상담원 김영희
3	4.22	화	상담기술	대성의 전화 상담원 김은희
4	4.25	금	청소년 문제와 상담	청소년 상담원 김은희
5	4.29	화	상담에서 상담이론	신영철의 전화 상담원 김은희
6	5. 2	금	불교와 상담이론	영남대학교 불교학 강사 김은희
7	5. 6	화	생활상담실기	이영희 강사
8	5. 9	금	가족문제와 상담	대구대학교 상담원 김은희
9	5.13	화	상담 실기	영남대학교 상담원 김은희
10	5.16	금	21C 불교의 차세대 역할론	동화사 불교대학 강사 변희선
11	5.20	화	상담실기 토론	교육부 주선

대구 팔공산 깎아부 뒤길 시연정사

문의전화 : (053)753-9734

FAX 053)753-9735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승설법, 개차법, 대가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내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김법륜 박사
- ※ 출강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중로구 중로 3가 20(영흥 B/D 4F)

시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엠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이우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강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엠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오디오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음ભ,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소리공강 종류◆

- ▷ 사찰 법당 엠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나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강 김문희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원 3동 48-8 중정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대화와 소통’ 이 평화의 길

블침 약속맨 북한의 두려움 형제애로 인해

평화포럼

19일 분노·질못된 이해가 사라진다. 평화의 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열린다."

방한 서울 재인 탁남한 스님은 19일 (사평화포럼)이사장 강연회 주회로 서울 포포인트 레라본 호텔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 참석,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들과 일반청중에게 전경문과 속에서 종교의 영상'을 주제로 법문을 들려주었다.

스님은 "전쟁은 분열과 분노 등을 분열시키고 있어 소통 없는 불행의 무자비를 파생시킨다"며 "‘대화’와 ‘소통’을 다시 하는 것이 평화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탁났한 스님

(프랑스 플럼빌리지)

것입니다. 단 10분이라도 대화와 소통을 한다면, 화를 '자비로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정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깨어있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또 "자비를 가꾸기 위해서는 같은 지혜를

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수많은 고통들을 조절하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은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도 지적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 어동생이 오빠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자유 상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스님은 "만약 격